

2019 년 10 월 6 일 “주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계 4:9-11)

사람이 아름답고, 선하고, 위대한 것에 경탄할 줄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것이 다른 피조물과 크게 다른 점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내재된 선한 감성을 하나님께 대하여 표출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1] 인간은 감동하는 존재

우리가 외모지상주의나 과학주의나 인본주의의 강한 물결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에 대해 경탄하며 주님을 따르며 살겠다는 표현과 행위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경배의 대상이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형식에 불과합니다. 또한 경배의 대상을 높이며, 찬양하고, 그분과의 동행에 대한 소원을 갖는 것이 예배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밧모섬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사도요한이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쓴 것입니다. 거기서 성령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고, 계 4-5 장에 기록된 것은 하늘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날 이 모습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예배입니다. 구원하셔서 최상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를 담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참 인격적인(영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2]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요 4:24 ‘영과 진리로’ → ‘영과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차원 안에서’라는 뜻.

‘진리 안에서’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요 8:32) 여기서 진리란 인간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쏟아 부어 취하고 싶은 최고 선, 최고 사랑, 최고 생명의 실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진리에 혼신을 다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적/외적 장애물도 극복하게 합니다. 따라서 ‘진리 안에서’는 ‘진리이신 주님께 투신하는 가운데’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예배의 현실과 미래

모든 종교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참 예배란, 주님과 참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또 주님의 참된 진리를 위해 투신하게 하는 자유 가운데 거하는 가로 분별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영적 유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의미를 못 찾은 사람은 나름대로 충분히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에 대한 경이와 감동이 없고, 가슴은 자기도 모르게 차가워지고, 그러다 보면 예배에 빠지게 되어도 아쉬움을 못 느낍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음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영적 내리막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편의의 기준으로 예배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점검할 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나는 자유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상태일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면 참 믿음에 대한 열림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참 예배 안에서는 깨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모든 것이 부족하여도 예배를 통해 주님께 대한 경이와 감사를 드리고 높여 드릴 수 있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진실한 예배자들을 깊이 보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부수적 일에 더 열심을 낸다면 결국 자기 의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남는 것은 오직 작은 자아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예배의 기회를 소중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맺음>

앞으로 교회 예배를 위하여 '시간 지키기', '본당 안에서 예배 드리기', '자리 배려하기'에 힘써 주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형제 자매들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성도과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예배가 화석화 되어 생명의 힘을 얻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깨어나 예배의 참된 부흥을 맛보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자신이 드렸던 공 예배 속에서 경험했거나 깨달은 영적 유익이 있다면 말씀해 봅시다.
2. 오늘 말씀을 참고하여 내 자신이 더 개선해야 할 예배의 자세나 마음가짐을 나누어 보세요.

2.